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195

노라·바쿠렌·Y코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에 대한 몇 가지 주석—

야나가와 요스케*

요 약

본고는 염상섭과 독서체험의 관계를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에 나타난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한 염상섭은 40여 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염상섭의 초기 작품에는 청년 시절에 읽은 외국문학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본고는 『인형의 집』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야나기하라 바쿠렌에 초점을 맞추어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를 분석하였다. 이 텍스트들은 여성 해방 담론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주제어: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인형의 집』, 아리시마 다케오, 야나기하라 바쿠렌

목차

1. 들어가며
2. 청년 시절의 독서체험
3. 신여성들의 말로
4. 나오며－‘그녀’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과정생)

1. 들어가며

본고는 횡보 염상섭(1897~1963)의 장편소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1923~1924, 이하 너희들)[1]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을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20년대 초반에 등단한 염상섭은 40여 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발표한 소설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초기 작품에는 청년 시절에 이루어진 독서체험의 영향이 곳곳에 드러난다. 『너희들』의 경우,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1879)과 아리시마 다케오의 서간체 소설 『센겐(宣言, 이하 선언)』(1915) 등 신여성과 관련된 텍스트들의 영향이 눈에 띈다.

염상섭과 외국문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독서체험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너희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독서체험과의 관계에 주목한 김경수, 아리시마 다케오와 오스카 와일드 등 개별 작가와 비교한 이보영과 류리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경수는 『너희들』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을 등장인물들의 모방 욕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2] 이보영과 류리수는 각각 와일드의 「모범 백만장자(*The Model Millionaire*)」(1887)와 아리시마 다케오의 『선언』과의 관련 양상을 분석하였다.[3] 한편 『너희들』에 등장한 B여사가 일본의 문인 야나기하라 뱌쿠렌(柳原白蓮)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거나[4] 신여성 덕순의 행동을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의 행

1)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동아일보』, 1923.8.27~1924.2.5.

2)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23-42면.

3) 이보영, 「Oscar Wilde와 염상섭-비교문학적 고찰」, 『인문논총』 20, 전북대학교 인문연구소, 1990;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류리수, 「아리시마 타케오의 『선언』과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신여성의 자아각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학』 57, 한국일본학회, 2003.

4) 白川豊, 「1920年代廉想涉小說と日本」(2002), 『朝鮮近代の知日派作家, 苦闘の軌跡-廉想涉, 張赫宙とその文學』, 勉誠出版, 2008, 79頁. 야나기하라 뱌쿠렌의 본명은 아키코(燁子)이지만 본고에서는 『너희들』에서 B여사로 등장하는 점

동과 비교하는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5] 이 밖에도 최혜실과 장두영의 연구를 통하여 『너희들』의 등장인물들이 실재인물을 모델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다.[6] 이처럼 『너희들』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은 작품이나 실재인물 등 일차적인 차원에서 원텍스트의 존재가 밝혀졌다. 그러나 『너희들』이라는 한 텍스트와 선행 텍스트들의 관계를 총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본고는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너희들』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1910년대 염상섭의 독서체험을 회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염상섭이 읽은 『인형의 집』의 판본과 그 독해 방식에 대하여 주목한다. 3장에서는 『너희들』에 등장하는 덕순과 마리아의 성격을 『인형의 집』의 노라와 『선언』의 Y코, 그리고 야나기하라 뱌쿠렌 등 모델로 제시된 신여성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청년 시절의 독서체험

2장에서는 염상섭의 독서체험을 1910년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염상섭은 해방 이후 청년 시절에 관한 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1차 유학시기'라 불리는 이 시기의 염상섭에 대하여 주로 비평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7] 그러나 1910년대

을 감안해 뱌쿠렌이라는 아호를 사용한다.

5) 정혜영, 「삶의 허위와 사랑의 허위－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최인숙,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노라'의 의미」, 『한국학연구』 24, 인하대하교 한국학연구소, 2011.

6)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장두영,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 방법 연구－「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7) 김경수, 『한국 현대소설의 형성과 모색－독서체험과 식민지 현실 사이에서』, 소

는 염상섭이 학교를 다니면서 '문학 수업'을 수행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 양상을 일본 시라카바파(白樺派) 문인들과의 관계와 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염상섭의 1차 유학시기를 소속 학교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염상섭의 1차 유학시기 행적〉

시기	거주지	소속 및 경력
1912~1914	도쿄	아사부중학교(麻布中學校), 세이학원(聖學院)
1914~1918	교토	교토부립 제2중학교
1918	도쿄, 쓰르가	게이오대학 예과, 교토 지방 신문사 기자
1919~1920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독립선언문 선포, 후쿠인(福音)인쇄소 직공

염상섭은 실제로 졸업한 교토부립 제2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학교를 중퇴한 경력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집안 사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지만[8] 중요한 것은 염상섭이 1910년대 중반 교토에서 유학 생활을 보냈다는 점이다.[9] 물론 염상섭도 아사부중학교와 세이학원을 다니던 1910년대 초반을 도쿄에서 보냈고 일부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도 참석하였다.[10] 그러나 교토에서는

나무, 2014, 246-277면.

8) 학적보에 따르면 1914년 9월 염상섭은 집안 사정〔家事都合〕을 이유로 세이학원을 중퇴하였다고 한다. 「1-B 聖學院中學校 學籍簿 第二號」, 大村益夫ほか, 『近代朝鮮文學における日本との關連樣相』, 綠陰書房, 1998, 295頁.

9) 염상섭 소설 중에서 교토가 등장하는 것으로 『광분』(1929~1930)을 들 수 있다. 『광분』에서 교토는 영화 촬영소가 많은 곳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동대지진(1923) 이후 도쿄에 있던 촬영소들이 대폭 교토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염상섭의 교토 지방 신문기자 경력과 오사카에서 삼일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가 도쿄보다 간사이(關西) 지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청년들과 절연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11] 다만 본인이 절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1918년 이전 염상섭이 나혜석과 나경석, 김우영 등을 알고 지냈다는 지적도 있다.[12] 그러나 문학인들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는 교토 생활을 마친 191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염상섭은 게이오대학 예과와 신문 기자, 인쇄소 직공을 거쳐 1920년『동아일보』창간과 동시에 정경부 기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염상섭의 문학 수업은 1918년경에 일단락됐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10년대 염상섭은 어떤 독서체험을 하였을까. 이 시기 한국 유학생들은 외국문학 작품을 주로 일본어 번역본을 통하여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유학을 두 번 경험한 춘원 이광수의 독서기록은 대부분 일본문학 및 일본어로 번역된 외국 작품들이었다.[13] 이러한 일본 유학생들의 독서체험은 작가의 개인사를 넘어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염상섭은 청년 시절의 독서체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나는 소년기의 후반을 좀더 한국적인 것에서 떨어져 지냈다는 것이 더욱 불리하였다. 가령『춘향전』을 문학적으로 음미하기 전에 도쿠도미 로카(德富蘆花)의『불여귀(不如歸)』를 읽었고, 이인직의『치악산』은 어머님이 읽으실 때 옆에서 몰래 눈물을 감추며 들었을 뿐인데,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금색야차(金色夜叉)』를 하숙의 모녀에게 읽어 들려 주었는지 하는 것

10) 염상섭,「별을 그리던 시절」,『지성』2, 1958.9, 82면.

11) 제월「상아탑 형께-「정사의 작」과「이상적 결혼」을 보고」,『삼광』1(2), 1919.12, 38면. 이때 염상섭은 한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잡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염상섭,「육당과 나」,『신태양』6(12), 1957.12, 217면.

12) 김영민,「염상섭 초기 산문 연구」, 문학과사상연구회,『개정판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81-89면.

13) 중학 시절 이광수의 독서체험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波田野節子,『李光洙·『無情』の研究-韓國啓蒙文學の光と影』, 白帝社, 2008, 125~181頁.

> 은, 문학적 출발에 있어 한국 사람으로서, 나 개인으로서, 불명예요, 불행이라 할 것이다. 일본 작품으로서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것, 다카야마 쵸규(高山樗牛)의 것을 좋아하여, 이 두 사람의 작품은 거지반 다 읽었다. **자연주의 전성 시대라, 그들 대표 작가들의 작품에서, 사조 상으로나, 수법으로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중략) **초기의 문학 지식의 계몽은 주로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월간지)에서 얻은 것이라 하겠다.** 작품을 읽고 나서는 월평이나 합평을 쫓아다니며 구독하는 데서 문학 지식이나 감식안이 높아 갔다고 하겠지마는, 『중앙공론(中央公論)』·『개조(改造)』 기타 문학지 중에서도 태서작품의 번역·소개와 비판 및 문학이론 전개에 있어 **『와세다문학』은 나에게 있어 독학자의 강의록이었다.**[14]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1차 유학시절의 독서체험을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서술한다. 이에 따르면 염상섭은 『춘향전』과 『치악산』 등의 한국 소설들 대신 『금색야차』를 비롯한 일본문학 작품을 읽었던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이것은 일제시대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문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염상섭은 당시 일본문단에서 유행하였던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인용문에서 언급된 『와세다문학』은 20세기 초반 일본 자연주의 담론을 이끌어 온 매체이지만 염상섭이 구독한 1910년대에는 이미 그 역할을 마친 상태였다. 이것은 염상섭이 동시대적으로 『와세다문학』을 읽었다기보다는 1900년대에 간행된 호들을 도서관 등에서 접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잡지 『

14) 염상섭, 「문학소년시대의 회상」, 양주동 편, 『개정판-민족문화독본』, 문연사, 1955, 120-121면. 강조는 인용자. 평론과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글이 수록된 『민족문화독본』 초판본(청년사, 1946)은 해방기에 발행되었지만 이때 염상섭의 글은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학소년시대의 회상」은 1950년대 중반에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판 독본에는 월북 인사들 대신 염상섭을 비롯한 필자들의 글이 새로 수록되었다.

다이요(太陽)』를 주간한 하세가와 덴케이(長谷川天溪)와 가네코 우마지(金子馬治)의 자연주의 담론을 수용했다는 지적도 있지만[15] 회고록에서 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염상섭의 소설과 평론을 통하여 청년 시절의 독서체험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염상섭은 1910년대 교토에서 『와세다문학』 등 자연주의 담론을 접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반자연주의 입장을 내세운 탐미주의와 시라카바파 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단적으로 『너희들』에서 참조된 「모범 백만장자」와 『선언』이 각각 탐미주의와 시라카바파를 대표하는 와일드와 아리시마 다케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짐작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염상섭의 소설 「암야」(1922)와 「유서」(1926) 등에서 시라카바파로 분류된 아리시마 다케오에 대하여 언급된다. 특히 「암야」에서 주인공이 아리시마의 작품집 『출생의 고뇌』[16]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염상섭의 독서체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너희들』에서 참조된 『선언』 또한 이와 같은 방식 즉 등장인물이 독서하는 책으로 나타난다.

염상섭과 시라카바파 인사들과의 관계는 독서체험이라는 간접적인 차원을 넘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17] 그들의 직접적인 교류는 1920년 초 염상섭이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글에 감동을 받아 시라카바파의 본거지를 찾아가는 데서 출발하였다.[18] 이 무렵 염상섭은 오사카에서 삼일운동에 참여

15)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180-190면; 이은지, 「다이쇼기 '개인' 담론의 지속가능한 발전－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일본비평』 16,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271-278면.

16) 이 작품집은 '아리시마 다케오 저작집 6집'으로 간행된 『生れ出る惱み』(叢文閣, 1918)이며, 「출생의 고뇌」 외에 「돌에 짓눌린 잡초」가 수록되었다.

17) 염상섭과 시라카바파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윤식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67-95면.

한 후 요코하마에서 인쇄공 경험을 겪으면서 한편으로 시라카바파 문인들을 찾아간 것이다. 다만 야나기 무네요시의 한국 관련 저술을 계기로 그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19] 염상섭이 시라카바파 문학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아리시마 다케오가 1910년대 『시라카바』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염상섭과 시라카바파의 관계가 문학을 매개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20] 『선언』 또한 『시라카바』에 연재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염상섭과 시라카바파 문인들과의 관계는 야나기 무네요시 등의 한국 및 도자기 관련 논고를 염상섭이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부인 야나기 가네코의 음악회 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21] 이러한 경험은 염상섭의 독서체험만이 아니라 『폐허』를 중심으로 한 동인지 활동과 동양 취미 등을 사유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염상섭의 초기 평론 가운데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상선을 위하야」(1922)[22]를 들 수 있다. 염상섭은 「

18) 염상섭, 「남궁벽 군」, 『신천지』 9(9), 1954.9, 144-145면.

19) 야나기 무네요시의 부인 야나기 가노코(柳兼子)에 따르면 염상섭은 「조선인을 想함(朝鮮人を想う)」을 읽고 직접 찾아왔다고 한다. 柳兼子, 「夫・柳宗悅を語る」, 『季刊三千里』 40, 1984.冬, 93頁.

20) 아리시마 다케오는 1910년대 중반까지 『시라카바』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지만 '내부 비판자'라는 평가에서 짐작되듯이 동인들 가운데에서 이색적인 존재였다고 한다. 龜井俊介, 『有島武郎－世間に對して眞劍勝負をし續けて』, ミネルヴァ書房, 2013, 134頁.

21) 염상섭은 「조선인을 想함」(1919)과 「朝鮮벗에게 보하는 書(朝鮮の友に贈る書)」(1920)를 『동아일보』에 번역하여 실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염상섭이 기자로 근무하던 『동명』에 『시라카바』에 실린 야나기와 무네요시와 아시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敎)의 이조백자에 관한 논고가 번역되기도 하였다. 경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야나기와 아사카와의 활동을 '경성 시라카바파'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02, 130~132頁. 야나기 무네요시 및 야나기 가네코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가토 리에 외, 『야나기 무네요시와 한국』, 소명출판, 2012.

22) 염상섭, 「지상선을 위하야」, 『신생활』 7, 1922.7.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인형의 집』에 나타난 노라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염상섭이 입센에 관심을 갖게 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차 유학시기와 『매일신보』에 『인형의 가(家)』가 연재된 1921년경이라는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된다. 전자로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와 마쓰이 쓰마코(松井須磨子) 등 『인형의 집』 일본 공연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인형의 가』의 삽화를 그린 나혜석과의 관계가 지적되었다.[23] 다만 1차 유학시절 염상섭은 『와세다문학』을 애독하였고 시마무라 호게쓰가 번역한 『인형의 집』이 『와세다문학』에 연재된 사실을 고려할 때[24] 일본 유학시절 즉 1910년대에 이미 작품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염상섭과 시마무라 호게쓰가 번역한 『인형의 집』의 비교를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상선을 위하야」는 『인형의 집』의 핵심 장면을 인용하면서 논의가 시작된다. 여기서 인용된 텍스트는 1910년대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인형의 집』이 다섯 번 번역되었다고 한다.[25]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사용된 어휘를 검토한 결과 시마무라 호게쓰의 번역본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라의 대사를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23) 김영민, 앞의 글, 48-59면.

24) 시마무라 호게쓰는 1910년대 초 『와세다문학』에 『인형의 집』 번역을 처음 발표하였고 1913년 단행본 『인형의 집』이 출간되었다.

25) 당시 일본의 입센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中村都史子, 『日本のイプセン現象－1906～1916年』, 九州大學出版會, 1997, 435～439頁.

〈표2. 島村抱月譯『人形の家』와「지상선을 위하야」의 텍스트 비교〉

	島村抱月譯『人形の家』[26]	염상섭「지상선을 위하야」[27]
노라	事際私には兒共は託されません－あなたの仰る通りです。さういふ問題は私の力に及ばないのです。私にはそれより先に解釋する問題があるのですよ－私は自分を敎育する工風を爲なくちやなりません。	事實 내게는 兒孩들을 付托하실 수가 없습니다.－당신 말씀대로. 그런 問題는 내 힘에는 겨운 일애요. 나에게는 그보다도 먼저 解釋해야 할 問題가 있습니다. 나는 自己를 敎育할 方策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노라	自分自身や周圍の社會を知りますため、私は全くひとりになる必要があります。ですから、此の上あなたと一緒に居ることは出來ないといふのです。	自己自身과 周圍의 社會를 알기 爲하야 나는 아주 獨身이 될 必要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以上 당신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라	それは私、もう信じません。何よりも第一に私は人間です。ちやうどあなたと同じ事です－少なくとも是れから、さうならうとして居る所です。無論世間の人は大抵あなたに同意するでせう。書物の中にも書いて居ませう。けれども是れからもう、私は大抵の人の言ふことや、書物の中にあることで滿足しては居られません。自身で何でも考え究めて明かにして置かなくちやなりません。	그런 것은 나는 인젠 믿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第一에 나는 사람이예요. 마치 당신이 사람인 것같이. 적어도 일로부터는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勿論 世上 사람은, 大槪는 당신에게 同意하겠지요. 冊에도 그렇게 쓰였겠지요. 그렇지만 인젠 보통사람이 하는 말이나, 冊에 쓰인 것으론 滿足할 수 없습니다. 自己가 무엇이든지 生覺하고 窮理해서 透得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마무라 호게스가 번역한『인형의 집』의 대사와「지상선을 위하야」에서 인용된 그것은 어휘와 어순 등 상당 부분 일치한다. 물론 문맥에 따라 일부 염상섭이 추가한 표현도 있지만 "해석"과 "사회",

26) イプセン, 島村抱月譯,「人形の家」,『抱月全集』5, 天佑社, 1919. 245~247頁.

27) 염상섭,「지상선을 위하야」, 68-69면.

"동의" 등 한자어는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유사점을 근거로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인용된 『인형의 집』은 시마무라 호게쓰의 번역본을 참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여러 번역본이 유통된 상황에서 염상섭이 이 번역본을 선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마무라 호게쓰의 경우, 사망 직후에 『전집』이 간행된 관계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텍스트였다. 이 밖에도 염상섭이 1910년대 중반 도쿄에서 시마무라 호게쓰를 중심으로 운영된 극단 게주쓰자(藝術座)의 상연 작품을 통하여 희곡을 접하였고[28] 『와세다문학』을 애독한 사실은 그의 영향을 다방면으로 받았음을 시사한다.

염상섭은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노라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29] 그는 노라와 남편 헬머의 사랑이 "순종(順從)과 희생"을 기본으로 한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헬머의 치료비를 얻기 위하여 분주한 노라는 전형적인 현모양처 형 인간이었다가 헬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겪고 각성하게 된다. 이 각성을 염상섭은 "자아의 확립" 또는 "자기혁명"으로 해석한다. 자신의 옛 모습에 "반역(叛逆)"하고 새로운 자아 세계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야 말로 "지상선" 즉 가장 선하다는 것이다. 『인형의 집』에 대한 염상섭의 해석은 일반적인 독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 사용된 반역과 지상선이라는 표현은 각각 막스 슈티르너와 오스기 사카에의 논리를 참조한 것으로 확인된다.[30] 특히 『너희들』과 관련해서 반역이라는 키워드는 주

28) 염상섭, 「문학소년시대의 회상」, 121면.

29) 이하 염상섭의 입센 인식에 대해서는 「지상선을 위하야」의 내용을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30) 권정희, 「『인형의 집』의 수용과 1920년대 '생명'담론」, 『한국학연구』 4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79-84면; 권철호, 앞의 글, 187면. 권철호에 따르면 반역과 관련해서 염상섭이 말하는 개성이란 근대적 주체의 내면 발견이 아니라 근대적 주체를 구속하는 사회 제도의 해체와 재정립을 의미한다고 한다.

목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염상섭의 독서체험을 그가 남긴 회고와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일부 신소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서체험이 일본어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교토 시절에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거의 교류를 갖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아리시마 다케오에 관심을 가진 염상섭은 시라카바파 문인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의 활동을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시라카바파는 『와세다문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주의 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염상섭은 이 사조들을 두루 설렵함으로써 자연주의와 탐미주의 문학을 동시에 수용한 셈이다.

3. 신여성들의 말로

1) 덕순의 경우

3장에서는 『너희들』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을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염상섭은 『인형의 집』의 노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그 사실은 「지상선을 위하야」에서 확인된다. 『인형의 집』에 대한 언급은 그의 초기작 「제야」(1922)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너희들』에서는 노라 외에 B여사와 Y코 등 개성에 충실하려는 신여성들이 이상형으로 등장한다. 덕순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등장인물은 이러한 신여성의 영향을 받아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일종의 모델 소설로 창작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덕순과 마리아의 행동이 실재 모델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그 양상을 덕순과 노

라 및 B여사, 마리아와 Y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상 · 중 · 하편으로 구성된 『너희들』에서 덕순과 관련된 대목은 상편과 중편에 집중된다. 신체불구자이자 중년 남자인 김응화와 결혼한 덕순은 남편의 경제적 지원으로 잡지 『탈각(脫殼)』을 운영하는 인물이다. 남편을 미국으로 보낸 덕순은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신체불구자인 중년 신사 이노익과 결혼한 일엽 김원주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31] 실제로 미국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노익은 귀국 후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하면서 젊은 아내 김원주가 운영하는 잡지 『신여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신여자』의 종간 이후 이노익과 김원주는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학업을 핑계로 남편만 보낸 김원주는 도쿄에서 혼자 머물게 된다. 김원주는 도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다가 청년 임노월을 만나 연인 관계가 되자 이노익은 이혼을 선택한다. 이처럼 중년 남자와의 애정 없는 결혼과 그의 잡지 발간 지원, 도쿄행 등 일련의 모티프는 덕순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덕순의 인물 설정은 실재 인물인 김원주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덕순과 김응화의 결혼은 "당초에 혼인을 하기가 불찰이지"(190)라는 한규의 발언에서 짐작되듯이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삼일운동을 계기로 급격한 사상적 변화를 겪은 덕순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개념으로 설명할 줄 아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마리아의 수동적인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엘렌 케이와 입센을 비롯한 자유사상은 덕순으로 하여금 여성의 해방이라는 근본문제에 눈뜨게 하였으며, 그 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탈각』을 창간한다. 『탈각』의 매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이 잡지에 덕순의 평론 「B여사의 고민」과 장홍진의 「신도덕관으로 본 B여사의 사건!」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여

31) 최혜실, 앞의 책, 265-276면; 장두영, 앞의 글, 139-147면.

성 해방 담론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덕순은 B여사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회의 물론(物論)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믿는 대로 용장하게 돌진**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도리어 당신에게는 고통이 더 많게 하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찬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죄인의 수갑 같은 도덕으로 시비를 가리우기 전에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당신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또 장래를 축복합니다……(223~224)[32]

「B여사의 고민」에서 덕순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려는 B여사 즉 뱌쿠렌의 태도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덕순은 뱌쿠렌이 일본 사회에 "용장하게 돌진" 하였기 때문에 자유 대신 새로운 고민과 고통을 받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너희들』에서는 「B여사의 고민」의 일부가 인용되었을 뿐, 결론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공백에 대하여 덕순은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저 동정할 만한 점도 있지만 잘못된 데도 없지 않으리라고 하였지요"(224)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긴다. 이것은 후술하듯이 뱌쿠렌이 '성적 혁명' 즉 남편 대신 새로 만난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관계로 이혼을 선택한 대목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성적 혁명이라는 표현은 라명수와 김중환 등 남성 지식인들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으로[33] 그들의 관심사가 남

32) 이하 『너희들』의 텍스트는 전집(『염상섭 전집』 1, 민음사, 1987)을 기본으로 삼았고 인용할 경우 해당 면수만 표기한다. 이하 인용문 강조는 모두 인용자.

33) 특히 뱌쿠렌에게 "동정을 안 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만 논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의 동기만은 나는 찬성할 수 없다"(233)라는 중환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편이 아닌 남성과 맺은 성적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뱌쿠렌의 행동이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너희들』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뱌쿠렌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 1885년 도쿄에서 백작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와 예기(藝妓) 사이에 태어난 야나기하라 뱌쿠렌(본명 아키코)은 곧 야나기하라의 본가로 입양되어 화족(華族) 집안에서 살게 된다. 1898년 화족여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자작 기타오지 스케타케(北大路資武)와의 결혼을 계기로 여학교를 중퇴한다. 1905년 기타오지와의 이혼 후 한동안 칩거 생활을 하다가 1908년 도요에이와(東洋英和)여학교로 편입하여 가인(歌人)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1911년 탄광왕 이토 덴에몬(伊藤傳右衛門)과 재혼하여 후쿠오카로 옮기게 된다. 화족들이 결혼을 통하여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는 당시 상황에서 탄광왕과의 결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 결혼에 뱌쿠렌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뱌쿠렌은 20여 세 차이라는 연령만이 아니라 신분 차이도 크게 나는 남자와 재혼한 셈이다. 후쿠오카에서는 서양식 생활을 하는 한편, 『후미에(踏繪)』(1915)와 『마보로시노 하나(幻の華)』(1919) 등 가집(歌集)을 출판하여 창작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1년 10월 뱌쿠렌이 신문을 통하여 남편에게 보낸 절연장은 일본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 사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뱌쿠렌과 사회운동가 미야자키 류스케(宮崎龍介)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0년 1월 출판과 관련된 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여러 번의 만남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가 1921년 여름 뱌쿠렌은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남편 덴에몬에게 간통죄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우려되자 뱌쿠렌은 집을 나가기를

34) 이하 야나기하라 뱌쿠렌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 평전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井上洋子, 『柳原白蓮』, 西日本新聞社, 2011.

결심하여 그 의지를 절연장으로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가 미야자키가 한때 활동하였던 신진카이(新人會)이다.

1918년 도쿄제국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진카이는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기관지『데모크라시(デモクラシ)』를 발행하였다.『데모크라시』제2호(1919.4)에는 염상섭의 일본어 평론「조야의 제공에게 호소함(朝野の諸侯に訴ふ)」이 게재되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염상섭과 미야자키가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35] 미야자키는 뱌쿠렌과의 관계를 이유로 1921년 봄 신진카이에서 제적된다.[36] 그러나 미야자키는 뱌쿠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문 기자와 변호사 등 신진카이 회원들과 상의하고 뱌쿠렌의 절연장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한다. 뱌쿠렌이 초고를 쓰고 미야자키 등의 수정을 거쳐 발표된 절연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 당초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사랑도 이해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습적인 결혼에 내가 굴종한 것은 내 주변의 결혼에 대한 무이해와 그리고 내가 약소한 결과였습니다. (중략) 이 불우한 운명을 위로해 주는 것은 오직 노래[歌]와 시(詩)만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초래한 불우함과 이 불우함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나의 생애는 결국 어두움 속에서 끝나리라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는 하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계기로 지금 부활하려는 중입니다.** 이대로는 당신에게 죄가 아닌 죄를 저지르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앞으로는 나

35) 염상섭이『데모크라시』에 글을 발표한 배경으로 김우영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浦川登久惠,「モデル小說・廉想涉 《해바라기》の分析」,『朝鮮學報』207, 朝鮮學會, 2008, 110~119頁.

36) 雨宮史樹,「1920年代の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青年知識人の役割－白蓮事件と東京帝國大學新人會を中心にして」,『일본학』 3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212면.

의 양심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기왕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허위를 떠나 진실로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하여 **나는 금전을 들어 여성의 인격적 존엄을 무시하는 당신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합니다.** 나는 나의 개성의 자유와 존귀를 준수하면서 그것을 기르기 위하여 당신을 떠납니다.[37]

「아키코의 절연장(燁子の絶縁狀)」(1921)에서 바쿠렌은 덴에몬과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과 미야자키와의 사랑을 계기로 부활된 개성,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남편과 절연하기를 선언한다. 바쿠렌은 남편의 여성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혼 생활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절연장에서는 덴에몬이 집안 가정부들과 단순한 고용 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었고 바쿠렌이 주부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에 대한 덴에몬의 반론 또한 신문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지만[38] 두 사람의 이혼은 한 달 만에 성립되어 1923년 바쿠렌은 화족에서 공식적으로 제적되었다. 그 후 바쿠렌은 가난에 시달리면서[39] 미야자키와 평생 함께 살았다.

---

37) 「燁子の絶縁狀」(『大阪朝日新聞』, 1921.10.22), 井上洋子, 앞의 책, 234-236면에서 재인용. 번역과 강조는 인용자.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御承知の通り結婚当初からあなたと私との間には全く愛と理解とを欠いてゐました。此の因襲的な結婚に私が屈從したのは私の周囲の結婚に對する無理解と、そして私の弱小の結果でございました。(中略)其の不遇なる運命を慰むるものは只歌と詩とのみでありました、愛なき結婚が生んだ不遇と此の不遇から受けた痛手のために私の生涯は所詮暗い暮のうちに終わるものだとあきらめたこともありました。しかし幸いにして私にはひとりの愛する人が与えられ、そして私はその愛によって今復活しやうとしてをるのであります。此の儘にしておいてはあなたに對して罪ならぬ罪を犯すことになることを恐れます。最早今日は私の良心の命ずるまゝに不自然なる既往の生活を根本的に改造すべき時期に臨みました卽ち虛僞を去り眞實に就く時が參りしました。依つて此の手紙により私は金力を以て女性の人格的尊嚴を無視する貴方に永久の袂別を告げます私は私の個性の自由と尊貴を守り且つ培ふ爲に貴方の許を離れます。"

38) 「絶縁狀を讀みて燁子に与ふ」(『大阪毎日新聞』, 1921.10.24~27), 井上洋子, 앞의 책, 237-249면.

『너희들』의 덕순은 이러한 뱌쿠렌의 용감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였고 덴에몬과 절연한 후에 발생한 그녀의 고민을 평론 「B여사의 고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덕순과 뱌쿠렌은 늙은 남자와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보내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은 덕순의 모델인 김원주가 뱌쿠렌의 행동을 모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김원주가 『신여자』를 창간하고 일본에 머무른 것은 뱌쿠렌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원주와 뱌쿠렌은 공통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노라를 모방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덕순 또한 그들과 유사한 행동에 나섰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도쿄에서 '자유'를 누린 덕순은 문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라와 뱌쿠렌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 **해방의 비애를 지금 비로소 맛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느니만치 그리고 지금의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차단하여 나갈 만한 자격이 구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니만치 앞길이 염려스럽고 향방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나는 노라를 찬미하야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도 한번 말씀한 것과 같이 사회의 비난은 없지 않다 하더라도 **'노라'보다는 B여사에게 동정이 갑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노라'도 남편의 품에서 빠져 나온 B여사와 같은 길을 밟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중략) **'노라'와 같은 극단의 이지적 개인주의보다는 B여사의 예술적 연애생활에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300~301)

인용문에서 덕순은 노라보다 뱌쿠렌에게 더 동정한 이유를 전자

39) 뱌쿠렌이 가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미야자키 류스케가 폐결핵으로 쓰러진 동시에 그의 형이 만든 빚을 갚아야 하였기 때문이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의 극단적인 '이지적 개인주의'보다 후자의 '예술적 연애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독서를 통하여 엘렌 케이를 비롯한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가 뱌쿠렌의 이혼 소식을 접한 후 덕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덕순은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였던 노라에서 한 발 벗어나 연애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뱌쿠렌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집을 나간 여성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노라의 행동을 빈곤과 관련지어 해석한 루쉰의 말마따나[40] 덕순은 학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에 부딪힌다. 결국 덕순은 생활난으로 도쿄 생활을 두 달 만에 포기하고 조선으로 귀국한다. 덕순은 남편과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도쿄로 떠났지만 뱌쿠렌처럼 자유연애와 파격적인 성적 혁명을 이루지 못하였다. 잡지 『탈각』을 중심으로 한 문필 활동을 통하여 여성 해방을 주장하였던 덕순은 뱌쿠렌의 행동을 노라의 그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상이 앞선 나머지 노라와 같은 '이지적 개인주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2) 마리아의 경우

덕순의 경우와 달리 마리아와 Y코의 관계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X여학교에서 기숙사 사감 대리로 일하면서 수양어머니이자 교장인 브라운의 지도를 받는 마리아는 얌전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덕순이나 남성 지식인과 대조적으로 종교와 학업에 전념하는 마리아는 뱌쿠렌의 파격적인 사건조차 모르는 인물로 나오지만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40) 루쉰은 1923년 겨울 한 강연에서 집을 나간 노라가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쉰,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1924),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1, 그린비, 2010, 245-246면.

변화는 직접적으로 처음 만난 이성인 청년과 부호 안석태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리시마 다케오의 『선언』이다.

마리아에게 큰 변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남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생긴 사랑의 감정이다. 기차간에서 우연히 만난 첫 번째 청년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지만 내용상 청년이 마리아에게 편지를 몇 통 보내다가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리아는 이 청년과의 만남을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만난 석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태는 X여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신자인 동시에 "황금의 후광(後光)"(290)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인물로 등장한다. 기숙사 사감 대리로 근무하는 마리아 또한 학교에서 석태를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음악회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변한다.

> 마리아는 지금 끌려 들어가는 공상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머리를 한번 흔들고 다시 편지로 눈을 옮겼다. 그러나 친필로 자디짧게 쓰인 글ㅅ가 아리송아리송하고 글줄이 왔다갔다하면서 별안간 지난달에 열린 음악회의 전날 밤의 광경이 눈 앞에 역력히 떠올라 왔다. 마리아는 얼굴이 금세로 화끈 취해 오며 가볍게 몸사리를 쳤다. 염통이 뒤재주를 치는 것같이 가슴이 콱 막혔다가 피가 활짝 퍼지는 것을 깨달았다. 우악한 팔쭉지가 두 어깨통을 얼싸안는 유쾌한 아픔을 느끼는 것 같다. 천정에 높이 달린 전등불이 눈 앞에 환히 보였다. 남자의 숨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290~291)

인용문에서 마리아는 기차간에서 만난 청년의 편지를 읽다가 음악회 전날 밤의 사건을 연상한다. 그 사건 내용은 마리아가 석태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며, 그 관계를 계기로 마리아는 결말에서

석태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마리아는 이 행위를 후회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첫 번째 남자에게－인용자) 그처럼 매정스럽게 하지 않아도 좋았을 걸……"(293)이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 없이 깨트러진 연애는 서로에게 아름답고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서술자의 경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41] 이처럼 성적 행위와 무관한 첫 번째 청년과의 순결한 관계와 성적으로 이루어진 석태와의 관계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후 마리아는 비밀리로 남자들을 만난 것을 후회하면서 그것을 브라운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토설하지 못한 채 번민한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첫 번째 청년이 보내온 편지의 "더럽히지 않은 영혼! 더럽히지 않은 영혼!"(295)이라는 구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명수에게 사랑받는 대신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 모든 죄를 용서하야 달라"(299)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사용된 순수한 영혼과 죄의식은 석태와 맺은 성적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리아의 갈등은 오직 '공상'으로 제시되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때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선언』이다.

하편에서 명수에게 빌린 『선언』을 읽은 마리아는 사랑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 동안 믿었던 기독교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 『선언』의 독서체험이 마리아로 하여금 큰 내적 변화를 이루

41) 서술자는 독자에게 성욕이란 연애의 원동력이지만 그것을 급하게 충족시키는 행위는 짐승과 같다고 경고한다. 그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꽃은 성욕의 충동이라는 원소의 동화작용으로 피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애라는 심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생명체의 제일 밑층에서 굳세게 움직이는 성욕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욕이 연애의 전체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중략) 성욕의 충족만이 연애의 전제로 아는 천박한 남녀에게는 성욕을 충족시킬 기회가 없이 그 연애관계가 깨트러질 때에는 피차의 인상이 아름답고 깊게 남을 수 있는 것이다."(292)

게 한 셈이다. 마리아는 명수와 주고받은 편지를 통하여 『선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42] 여기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약혼자인 A를 버리고 그의 친구인 B를 선택한 Y코의 판단이다. A와 B가 주고받는 편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언』에서 Y코의 내면은 수기를 통하여 공개된다. 이 수기에서 Y코는 어느 비 오는 날 B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이때 Y코는 B에게 처녀 시절에 느꼈던 여러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추측된다.[43] 이 고백을 계기로 Y코는 자신의 성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 회의심을 갖게 된다.[44] Y코는 금욕과 종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B를 선택한 사실을 수기로 선언한다. 이 선언은 A와 B가 각각 평가한 바와 같이 Y코의 '각성'과 '소생'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선언』을 어떻게 읽었을까. 가장 문제적인 대목은 결말에서 일어난 Y코의 급격한 내면 변화일 것이다. 성적 욕망과 기독교 신앙에 관한 Y코의 변화는 『선언』을 독파한 마리아가 경험한 그것과 유사점을 가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심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욕망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이다. B는 Y코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탈퇴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점을 비판한다.[45] 즉 기독교 신앙이 성적 욕망도 지배한다는 인과관계가 성립

42) 마리아가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선언』의 Y코가 수기로 내면을 드러낸 대목과 유사하다.

43) Y코의 수기에서는 이날 B와 나눈 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그러나 B가 A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하여 Y코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사실이 확인된다. 有島武郎, 「宣言」(1915), 『有島武郎全集』, 2, 筑摩書房, 1980, 368~372頁.

44) 有島武郎, 위의 책, 400頁.

45) B는 교회를 탈퇴하게 된 이유로 타인에게 전도할 자격이 없는 점과 개인의 온갖 행동을 규제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취흥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언』을 읽고 "알 수 없는 분노"(341)를 느끼기 시작한 마리아는 학교를 '감옥'으로 인식하게 된 동시에 개성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이처럼 『선언』의 독서체험을 계기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는 기독교 신앙과 성적 욕망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원인이 불분명한 분노로 나타난 이 변화는 『선언』의 Y코가 경험한 변화인 동시에 『인형의 집』의 노라를 자신의 옛 모습에 반역하는 자로 본 염상섭의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마리아는 실재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인형의 집』과 『선언』을 비롯한 염상섭의 독서체험을 통하여 창조된 인물이었다.

원인이 불분명한 분노를 느낀 마리아는 기차간에서 만난 청년과 안석태와 라명수 등 연애 대상자들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염상섭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새로운 자아 세계의 추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때 마리아는 Y코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적으로 명수와 편지를 주고받아 '사람의 길'을 찾으려는 대목에서 확인되며, 그것은 "실제의 생활이라든지 그날그날의 산 문제와는 아주 다른 어떠한 높고 꿈같은 세계만 올려다보고 있는"(349) 기독교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마리아의 고민거리는 명수가 지적한 대로 종교와 재산, 연애 등으로 구분되며, 종교는 행동 규제, 재산은 석태, 연애는 명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람의 길로 통한 선택지 가운데 종교에 회의감이 든 마리아는 고민 끝에 석태를 선택한다. 마리아가 Y코처럼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 그러나 참 어떻게 조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有島武郎, 위의 책, 345頁.

것이 절망이요, 모든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될까 봅니다. **모든 것이 제 죄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384)

인제는 모든 것이 쓸데없는 옛날의 묵은 기억 밖에 되지 않을 것을 알매 제 일이언만 몸이 떨립니다. 곱고 정한 기억은 곱고 정하게 그대로 봉하여 두는 것이 좋겠지요. **더럽힌 몸에도 곱고 정한 기억이 숨기었다면**—그보다도 이 세상에 자기 이외에는 아지 못하는 '곱고 정한 기억'이 품기었다면 '비밀'을 가진 것이 얼마나 저의 일생에는 두 번 얻지 못할 행복이요 인생의 광영일까요. 선생님 저는 **막다란 골짜기에 몰려 들어온 한 다리 저는 강아지**외다. (중략) 선생님! 결코 저더러 약하다고는 마시옵소서.(385~386)

마리아는 명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석태를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제 죄"나 "더럽힌 몸"이라는 표현은 결혼 전에 석태와 성 관계를 맺었음을 시사하며, 소설 마지막의 「필자의 말」에서는 마리아가 "석태 씨를 품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촌교당에서 석태와 혼례식을 거행"(386)했다는 후일담이 제시된다. 이러한 정보는 마리아가 결코 석태의 재산을 이유로 그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선언』의 독서체험을 전후로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전에 석태와 맺은 관계로 자유연애를 포기하고 "한 다리 저는 강아지"가 되었다.

이처럼 『너희들』에 나타난 여성 등장인물은 노라와 Y코, 뱌쿠렌 등 실재 인물과 허구적 인물들을 모델로 삼아 그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였다. 나이 많은 남편과 이혼한 김원주를 모델로 한 덕순은 노라보다도 연애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뱌쿠렌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수용한 자유사상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한 덕순은 남편과의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 한편 마리

아는 『선언』의 독서체험과 남자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종교가 개성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더럽힌 몸"이라는 표현에서 짐작되듯이 정조 관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 이처럼 덕순과 마리아는 자유연애 등을 통하여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4. 나오며－'그녀'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본고는 염상섭의 장편소설 『너희들』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을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염상섭의 창작 활동 가운데 초기 작품에는 청년 시절에 이루어진 독서체험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2장에서는 염상섭의 그러한 독서체험에 대하여 그의 회고와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염상섭은 일본 자연주의 담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라카바파 문학을 탐독하고 그 동인들과 인적 교류를 가졌다.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에 대해서는 평론을 통하여 자기혁명을 일으키려는 노라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청년 시절 독서체험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텍스트가 『너희들』이다. 염상섭은 사실상 첫 신문 연재소설에 해당하는 『너희들』에서 적극적으로 외국 작품들을 참조한 셈이다. 3장에서는 덕순과 마리아의 성격을 노라와 뱌쿠렌, Y코 등 모델로 제시된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라의 이지적 개인주의보다 뱌쿠렌의 예술적 연애생활을 선호한 덕순은 사상이 앞선 나머지 전자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마리아 또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Y코를 모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계획은 중간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들』에 나타난 덕순과 마리아는 노라, 뱌쿠렌, Y코의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노라에서 출발한 여성 해방의 사상은 Y코와 뱌쿠렌을 경유하여 덕순과 마리아까지 전달되었다. 입센 본인은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46] 『인형의 집』의 노라는 여성 해방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선언』의 저자 아리시마 다케오는 1900년대 미국 유학 시절부터 탐독하였던 입센 작품에 대한 평론을 발표하였고 『인형의 집』을 노라의 인간성을 무시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47] 작가의 말마따나 『선언』의 Y코를 새로운 '여성 의식'을 깨달은 인물로 볼 때[48]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간 노라의 존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야자키 류스케와 맺은 불륜 관계를 배경으로 집을 나간 뱌쿠렌 또한 노라를 모방한 인물이었으며, 그들의 영향을 받은 덕순도 집을 나갔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유입된 여성 해방 담론을 감당할 정도의 사회적 토양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염상섭은 이러한 여성 해방 담론이 한반도로 전파되는 양상을 『너희들』에서 형상화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 독서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을 접한 염상섭은 『너희들』의 젊은 등장인물들에게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시켰다. 특히 마리아는 『선언』의 독서체험을 통하여 금욕과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다. 마리아가 겪은 이 변화는 노라를 자신의 옛 모습에 반역하여 새로운 자아를 탐구한 인물로 본 염상섭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

46) イプセン, 原千代海編譯, 『イプセンの手紙』, 未來社, 1993, 422~423頁.

47) 有島武郎, 「イプセン研究」(1920), 『有島武郎全集』 8, 筑摩書房, 1980, 470~471頁. 물론 「입센 연구」는 『선언』 발표 이후에 작성되었지만 아리시마는 입센의 작고 소식을 듣고 「입센 잡감(イプセン雜感)」(1908)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아리시마가 『선언』 발표 이전부터 입센에 관심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48) 有島武郎, 「現代作家の取扱ふ小說中の女性」(1919), 山田昭夫・內田滿編, 『資料有島武郎全集(上)』, 櫻楓社, 1975, 31頁.

러나 자유연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석태와 맺은 성 관계는 마리아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것은 『선언』의 독서체험을 계기로 마리아가 각성하기 시작하였지만 기존의 정조 관념을 극복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서술자는 그 이유를 마리아가 성욕과 연애를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신여성을 보는 염상섭의 시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염상섭은 『인형의 집』과 『선언』을 비롯한 여성 해방과 관련된 문학 작품과 뱌쿠렌 사건 등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녀들의 선택을 결코 긍정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작가 염상섭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뱌쿠렌의 사례에서도 짐작되듯이 당시 일본 및 조선 사회가 여성 해방 담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녀들은 독서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사상을 얻었지만 시대와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삼광』, 『신생활』, 『신천지』, 『신태양』, 『지성』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1, 그린비, 2010.

양주동 편, 『개정판－민족문화독본』, 문연사, 1955.

염상섭, 『염상섭 전집』 1, 민음사, 1987.

有島武郎, 『有島武郎全集』 2, 筑摩書房, 1980.

有島武郎, 『有島武郎全集』 8, 筑摩書房, 1980.

イプセン, 原千代海編譯, 『イプセンの手紙』, 未來社, 1993.

島村抱月, 『抱月全集』 5, 天佑社, 1919.

柳兼子, 「夫・柳宗悅を語る」, 『季刊三千里』 40, 1984.冬.

山田昭夫・內田滿編, 『資料有島武郎全集(上)』, 櫻楓社, 1975.

권정희, 「『인형의 집』의 수용과 1920년대 '생명'담론」, 『한국학연구』 4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52,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류리수, 「아리시마 타케오의 『선언』과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신여성의 자아각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학』 57, 한국일본학회, 2003.

이보영, 「Oscar Wilde와 염상섭－비교문학적 고찰」, 『인문논총』 20, 전북대학교 인문연구소, 1990.

이은지, 「다이쇼기 '개인' 담론의 지속가능한 발전－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일본비평』 16,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장두영,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 방법 연구－「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정혜영, 「삶의 허위와 사랑의 허위－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최인숙,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노라'의 의미」, 『한국학연구』 24, 인하대하교

한국학연구소, 2011.

雨宮史樹, 「1920年代の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青年知識人の役割－白蓮事件と東京帝國大學新人會を中心にして」, 『일본학』 3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浦川登久惠, 「モデル小說・廉想涉 《해바라기》の分析」, 『朝鮮學報』 207, 朝鮮學會, 2008.

가토 리에 외, 『야나기 무네요시와 한국』, 소명출판, 2012.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경수, 『한국 현대소설의 형성과 모색－독서체험과 식민지 현실 사이에서』, 소나무, 2014.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문학과사상연구회, 『개정판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지각, 1991.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井上洋子, 『柳原白蓮』, 西日本新聞社, 2011.

大村益夫ほか, 『近代朝鮮文學における日本との關連樣相』, 綠陰書房, 1998.

龜井俊介, 『有島武郎－世間に對して眞劍勝負をし續けて』, ミネルヴァ書房, 2013.

白川豊, 『朝鮮近代の知日派作家, 苦闘の軌跡－廉想涉, 張赫宙とその文學』, 勉誠出版, 2008.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02.

中村都史子, 『日本のイプセン現象－1906～1916年』, 九州大學出版會, 1997.

波田野節子, 『李光洙・『無情』の研究－韓國啓蒙文學の光と影』, 白帝社, 2008.

<Abstract>

Nora, Byakuren, Y-ko
—Some notes on *What Have You Gained*—

YANAGAWA YOSUK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Yeom Sang-seop and his reading experience through *What Have You Gained*. Yeom Sang-seop was well known as an author and his novels have been highly regarded in Korean modern literature. In particular, his early work shows the influence of foreign literature. This paper focused on *What Have You Gained* which was written under the influence of *A Doll's House*, Arishima Takeo and Yanagihara Byakuren. These contexts were related with an emancipation of women.

Key words: Yeom Sang-seop, *What Have You Gained*, A *Doll's House*, Arishima Takeo, Yanagihara Byakuren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